

『三國遺事』壬申本の底本과 板刻에 대한 연구

A Study about the Jeobon and Pangak of Imshinbon in *Samgukyusa*

유 부 현 (Yoo, Boo-Hyun)*

◁ 목 차 ▷

- | | |
|----------------------------------|-------------------|
| 1. 서 언 | 3. 임신본의 저본과 판각 성격 |
| 2. 임신본의 인출과 판각의 성격에
따라 구분된 紙張 | 4. 결 언
<참고문헌> |

<초 록>

본 연구는 현재 공개된 선초본인 <왕력> 편, 제1, 2, 4, 5권과 임신본과의 면밀한 대조를 통해 임신본의 판각에 대하여 올바르게 분석하여 필자가 범했던 종래의 오류를 바로 잡고, 임신본의 저본과 판본의 판각에 대해 새로운 분석을 시도한 것이다. 그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임신본 『삼국유사』의 張數는 총 218장인데, 이중 43장은 舊板(선초본의 책판)에서 인출된 것이고, 147장은 선초본을 번각한 新板에서 인출된 것이며, 5장은 고려본(추정)을 번각한 新板에서 인출된 것이고, 23장은 필사 판각된 신판에서 인출된 것으로 고찰되었다. 이 가운데 고려본(추정)을 번각한 新板에서 인출된 것으로 판단된 임신본의 5장은 <왕력>의 제9장, 제10장과 제1권의 제12, 16, 36장 등이고, 필사 판각된 것으로 판단된 23장 중에서 제2권의 제43, 46장 2장은 고려본(추정)을 저본으로 필사 판각된 것으로 추정되었다.

要語: 『삼국유사』, 임신본, 선초본

* 大眞大學校 文獻情報學科 教授(boohyun@daejin.ac.kr)

접수일: 2015년 6월 2일 최초심사일: 2015년 6월 17일 심사완료일: 2015년 6월 25일

<ABSTRACT>

This study is that newly trying to analyze the jeobon and panbon of Imshinbon by properly examining the pangak of Imshinbon and correcting the existing errors that I have made through close comparing Wangryukpyun and volume 1, 2, 4, and 5 in Seonchobon which is currently disclosed with Imshinbon. The summarized results are as in the following.

The total number of pages of Imshinbon in *Samgukyusa* is 218. It is considered that 43 of them are printed from the old book (the woodblock of Seonchobon), 147 are put into print from the new book being reprinted with Seonchobon, 5 are from the new book being reprinted with Koryobon (as a guess), and 23 are from the new book that is transcribed by hand and woodcut. Among them 5 pages of Imshinbon judged from the new book being reprinted with Koryobon (as a guess) are the 9th and 10th of 'Wangryuk' and 12th, 16th, and 36th of the volume 1 etc. Besides among 23 that are transcribed by hand and woodcut, 43th and a couple of 46th in volume 2 are thought that they are transcribed by hand and woodcut with Koryobon (as a guess) as jeobon.

Key words: *Samgukyusa*, Imshinbon, Seonchobon

1. 서 언

「삼국유사」 임신본의 板刻에 대해서는 今西龍 이후 이미 많은 선행연구가 진행되었다. 그래서 「삼국유사」 임신본은 舊刻板 50板이 重刊될 때 그대로 사용되었으며,¹⁾ 전체 218板 중에 40板이 舊刻板이고 나머지 178板이 당시에 改刻된 것이었고,²⁾ 사용가능한 舊刻板은 그대로 두고, 마멸이 심한 板만을 改板한 것이었다.³⁾는 연구 결과가 있었다. 특히 ‘卷2’에 대해서, 柳鐸一은 총 49張 가운데, 舊刻이 24張 改刻이 25張이었다고 하였고, 金相鉉은 제1-36張과 37-49張은 書體와 刻法이 다른 것으로 언급하였다. 또한 南權熙는 鮮初本 계열의 泥山本과 壬申本과의 대조를 통해서 ‘卷2’의 제3-18, 28-33, 41, 44장의 24板은 舊刻板의 형태를 지니고 있으며, 제1, 2, 19-27, 34-40, 42, 43, 45-49장까지의 25板은 改刻板인 것으로 논급하였다.⁴⁾ 이러한 선행연구에 대해서, 1992년 필자는 아래와 같은 주장을 하였다.

“... 이상을 정리하면, 첫째, 壬申本 가운데 ‘舊刻板’의 형태를 지닌 24板은 底本인 鮮初本과 形態書誌적인 요소 즉 匡郭의 크기, 魚尾, 邊欄의 형태가 모두 일치하고 있으며, 둘째, ‘改刻板’의 형태를 갖고 있는 25板은 匡郭의 크기가 鮮初本에 비해서 훨씬 작으며, 魚尾 혹은 邊欄이 다른 형태로 변형되었다는 것이다. 단, 제27장은 魚尾와 邊欄의 형태가 鮮初本과 예외적으로 일치하고 있으나 匡郭의 크기는 큰 차이가 나고 있다.

위와 같이 정리된 ‘舊刻板’의 형태를 지닌 24板과 ‘改刻板’의 형태를 갖고 있는 25板의 특성으로 볼 때, 前者의 24板에서 인출된 24장은 底本인 鮮初本을 飜刻에 의해서 板刻된 新板에서 인출된 것이고, 後者の 25板에서 인출된 25장은 鮮初本을 底本으로 해서 筆寫改刻된 新板에서 인출된 것으로 생각된다.

혹 前者를 舊刻된 冊板에서 인출한 것으로 짐작할 수도 있겠지만, 「泥山」과 「서울」을 대조해 보면, 字體의 굵기가 상이한 바 「泥山」은 가늘고 「서울」은 굵게 나타나고 있고, 字缺로 인한 缺劃의 상태가 서로 다르며, 匡郭과 界線에서

1) 今西龍, “正德本三國遺事に 대해서,” 『典籍之研究』 5·6(1927), 108.

2) 柳鐸一, “三國遺事の 文獻變化 樣相과 變因,” 『三國遺事研究』 上 (嶺南大, 1983), 263.

3) 金相鉉, “三國遺事の 書誌學的 考察,” 『三國遺事の 綜合的 考察』 (精文研, 1987), 57.

4) 南權熙, “泥山本 「三國遺事」의 書誌的 考察,” 『書誌學研究』 5·6합집(書誌學會, 1990), 218.

보이는 木理의 상태도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어 서로 다른 冊板에서 인출된 것임을 확인할 수 있다. 결국 ‘舊刻板’의 형태를 지닌 壬申本의 24板은 飜刻에 의해서 板刻되었기 때문에 底本인 鮮初本이 갖고 있는 形態書誌적 요소를 변화없이 그대로 유지하게 되었던 것이고, ‘改刻板’의 형태를 지닌 壬申本의 25板은 登梓本과 新板을 새로 마련하여 筆寫改刻되는 과정에서 壬申本의 筆寫改刻者에 의해 底本인 鮮初本과는 다른 形態書誌적 요소를 지니게 되었던 것이다.”⁵⁾

그런데 필자의 이러한 주장은 당시 필자가 판본학에 관한 지식이 일천하고, 판본 감정의 경험 또한 매우 부족한 상황에서, 극히 제한된 자료에 의거하여 진행된 잘못된 연구 결과이었다.

현재 공개된 『삼국유사』의 현존본은 선초본으로서 ‘과른본’(‘왕력’편, 제1권, 제2권), ‘니산본’(제2권), ‘趙鍾業所藏本’(제2권), 몇 장의 사진만이 공개된 ‘곽영대소장본’(제3권), ‘범어사본’(제4, 5권) 등이 있다. 그리고 임신본으로서는 ‘규장각본’, ‘만송본’, ‘天理大學所藏本’, ‘국립중앙도서관소장본’(‘왕력’편의 사진본임), ‘봉좌문고소장본’ 등이 있다.⁶⁾

본 연구에서는 현재 공개된 선초본인 ‘왕력’편, 제1, 2, 4, 5권과 임신본과의 면밀한 대조를 통해 임신본의 판각에 대하여 올바르게 분석하여 필자가 범했던 종래의 오류를 바로 잡고, 임신본의 저본에 대한 분석을 비롯한 진일보한 연구 결과를 도출해 내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의 결과는 향후 『삼국유사』의 판본을 이해하고, 『삼국유사』를 교감하는데 유용한 단서가 될 것으로 기대되는 바이다.

5) 柳富鉉, “『三國遺事』 ‘卷二’에 대한 書誌學的 考察,” 『東方學志』 76집(國學研究院, 1992), 53.

6) 이들 『삼국유사』의 현존본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글에 자세히 소개되어 있다.
高大圖書館, “『三國遺事』 古本 10種의 概觀,” 『三國遺事』 (高大圖書影印 제12호, 1983), 5.
南權熙, “泥山本 三國遺事의 書誌的 考察,” 『書誌學研究』 5·6합집(書誌學會, 1990), 212.
柳富鉉, “三國遺事 ‘왕력’ 校勘考,” 『史學研究』 43·44호(韓國史學會, 1992), 63.
河廷龍, 『『삼국유사』 사료비판』 (민족사, 2005), 39, 41.

2. 임신본의 인출과 판각의 성격에 따라 구분된 紙張

임신본의 인출과 판각의 성격에 따른 임신본의 紙張은 다음과 같이 여러 성격의 지장이 존재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첫째, 임신본의 紙張은 舊板(선초본의 冊板)에서 인출된 것과 新板(임신본의 책판)에서 인출된 것이 존재한다. 둘째, 임신본의 新板(임신본의 책판)에서 인출된 것 가운데는 선초본과 고려본(추정)을 번각한 것 그리고 필사판각된 것이 존재한다.

이상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① 임신본의 印出과 판각의 성격에 있어서 舊板(선초본의 冊板)에서 인출된 것⁷⁾은 다음과 같이 총 43장인 것으로 분석된다(<사진 1> 참조).

제1권의 제3, 4, 13, 14, 22, 26, 28, 35장. 총 8장

제2권의 제3~18, 28~33, 41, 44장. 총 24장

제3권의 제19, 23, 28, 36장. 총 4장

제4권의 제3, 5, 19, 24장. 총 4장

제5권의 제7, 10, 13장. 총 3장

② 新板(임신본의 冊板)에서 인출된 것 가운데, 선초본을 번각한 冊板에서

7) 임신본 가운데 舊板에서 인출된 紙張에서는 완결된 글자가 종종 보이고, 계선과 변란에는 木理가 많이 보인다. 즉 특히 계선은 심하게 완결된 상태이다. 그리고 글자의 획은 매우 두꺼워진 상태이다(반면 선초본의 글자 획은 가늘다). 이것은 鮮初(1394년경)에 판각된 冊板이 中宗朝(壬申年(1512)년 이후)에 이르러 책판이 많이 닳고 완결되었기 때문에 발생한 현상으로 판단된다.

한편 임신본 가운데 舊板에서 인출된 紙張을 선초본과 대조해 보면, 글자의 결락된 상태가 서로 다르며, 匡郭과 界線에서 보이는 木理의 상태도 상이하게 나타나는 경우도 상당수 발견된다. 이러한 현상은 初刷本과 後刷本에서 발생하는 일반적인 현상이다. 반면 어떤 판본에 있어서는 그 底本과 翻刻本 사이에서 나타나는 현상이기도 하다. 때문에 필자는 종래에 ‘底本과 翻刻本 사이에서 나타나는 현상’만 주목하여 임신본 가운데 ‘舊板에서 인출된 紙張’을 선초본을 번각한 紙張으로 誤認하는 오류를 범했던 것이다.

인출된 것⁸⁾은 아래와 같이 총 147장인 것으로 판단된다(<사진 1> 참조).

‘왕력’의 제1~8장, 제13, 14장. 총 10장

제1권의 제1, 2, 5~11, 15, 17~21, 23~25, 27, 29~34, 37장. 총 26장

제2권의 제1, 2, 19~27, 34~40, 42장. 총 19장

제3권의 제15~18, 20~22, 24~27, 29~35, 37~54장. 제55, 56장. 총 38장

제4권의 제1, 2, 4, 6~18, 20~23, 25~31장. 총 27장

제5권의 제1~6, 8, 9, 11, 12, 14~30장. 총 27장

③ 新板(임신본의 冊板)에서 인출된 것 가운데, 고려본(추정)을 번각한 冊板에서 인출된 것⁹⁾은 아래와 같이 총 5장인 것으로 추정된다(<사진 6, 8, 9> 참조).

‘왕력’의 제9장, 제10장.

제1권의 제12장, 제16장, 제36장 등 총 5장이다.

④ 新板(임신본의 冊板)에서 인출된 것 가운데, 筆寫板刻된 冊板에서 인출된 것¹⁰⁾은 아래와 같이 총 23장인 것으로 분석된다(<사진 2, 3, 4> 참조).

‘왕력’의 제11, 12, 15장. 총 3장

제2권의 제43, 45~49장. 총 6장

제3권의 제1~14장. 총 14장

8) 新板(임신본의 冊板)에서 인출된 것 가운데, 선초본을 번각한 冊板에서 인출된 것으로 판단되는 임신본의 紙張은 선초본과 글자의 위치와 배열 및 자형은 동일하지만, 선초본보다 글자의 획이 굵고, 글자의 획과 모양이 매우 투박한 상태이다.

9) 新板(임신본의 冊板)에서 인출된 것 가운데, 고려본(추정)을 번각한 冊板에서 인출된 것으로 판단되는 임신본의 紙張은 선초본과 글자의 위치와 배열 및 자형이 완전히 다르다. 또한 글자의 획이 굵고, 글자의 모양이 정교하지 못하고 매우 투박한 상태이다.

10) 新板(임신본의 冊板)에서 인출된 것 가운데, 筆寫板刻된 冊板에서 인출된 것으로 판단되는 임신본의 紙張은 선초본과 글자의 위치와 배열 및 자형이 완전히 다르다. 그러나 글자의 획이 가늘고, 글자의 모양이 비교적 정교한 상태이다. 반면 글자의 서체는 그다지 품격이 있어 보이지 않는 筆書體이다.

3. 임신본의 저본과 판각 성격

여기에서는 임신본과 선초본의 면밀한 대조를 통해 발견된 선초본과 임신본의 특이한 판각 상태를 자세히 분석하고, 분석된 결과에 의거하여 선초본과 임신본의 저본과 판각 성격을 추론해 보고자 한다. 아래에 인용된 두 개의 예문 가운데 ‘ / ’ 앞에 인용된 내용은 선초본의 내용이고 다음에 인용된 내용은 임신본의 내용이다.

① ‘왕력’ 제9장의 판각 상태¹¹⁾(<사진 5, 6, 7>)

“英‘▲伯口’之女” / “父‘史伯ㅁ’之女”(前面 제1행)

이것은 내용상으로 볼 때, 원래 원각본에는 “英失角干之女”로 기재되었을 것으로 판단되는 것이다. 그런데 임신본과 선초본의 저본이 된 판본은 각각 그 원형이 많이 훼손된 상태이었기 때문에 임신본과 선초본 역시 각각의 저본의 훼손된 상태가 각각 인습되어, 임신본은 “父‘史伯ㅁ’之女”의 상태로, 선초본은 “英‘▲伯口’之女”의 상태로 바뀌게 된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임신본의 “父‘史伯ㅁ’之女” 가운데 ‘伯ㅁ’는 선초본과 임신본의 저본인 판본에서 잘못된 것인데, 임신본에는 그대로 번각 수용되었고, 선초본에서는 ‘伯ㅁ’의 ‘ㅁ’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口’로 처리되어 ‘伯口’로 필사되어 판각된 것으로 추정된다.

11) ‘왕력’ 제9장은 특이하게 판각된 것으로 생각된다. 특이하게 이루어진 판각 가운데, 일부는 筆寫하고, 일부는 저본의 紙張을 오려 붙인 다음 판각된 것으로 추정되는 것이 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왕력’ 제9장 전면 2단 제1행의 ‘羅’와 그 아래에 小字雙行으로 기재된 것과 4단 제9행의 ‘王’과 그 아래에 小字雙行으로 기재된 내용은 저본의 紙張이 오려 붙여진 다음에 판각된 것으로 짐작된다. 그러나 분명하게 단언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이외에 필사판각인지 번각인지를 분간할 수 없는 부분도 많다.

이러한 사실은 이 임신본 ‘왕력’ 제9장의 저본이 되었던 판본이 선초본보다 한 층위 앞선 판본(즉 고려본으로 추정됨)임을 말해 주는 것이다. 따라서 임신본과 선초본의 저본은 동일 계통의 판본(즉 판본의 전승 층위가 동일한 고려본으로 추정됨)이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임신본 ‘왕력’의 제9장 후면 3단 제8행에서 발생된 脫字¹²⁾(<사진 6>)가 선초본에는 온전하게 들어 있는 것으로 보아,¹³⁾ 임신본의 저본이 되었던 판본은 선초본의 저본이 되었던 판본보다 후에 인출된 판본인 것으로 추정된다.

② ‘왕력’ 제10장의 판각 상태(<사진 5, 6>)

②-1 “或云武康名璋小名▲¹⁴⁾■’庚申立” / “或云武康獻丙戌小名一▲¹⁵⁾‘葩’德申立”(前面 제9행)

이것은 선초본의 “▲■庚”과 임신본의 “▲葩德”은 선초본과 임신본의 저본인 판본에서 “▲葩庚”과 유사한 형태로 뭉개져 잘못된 것으로 추정되는 것이다. 그런데 임신본에는 이것이 번각 수용되면서 “▲葩德”과 유사하게 잘못된 글자의 형태로 된 것이고, 선초본에서는 이것이 필사되어 수용되면서 “▲葩庚” 가운데 ‘葩’(‘葩’)와 유사하게 뭉개져 잘못된 글자)가 墨等(‘■’)으로 처리되어 ‘▲■庚’으로 필사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사실은 이 임신본 ‘왕력’ 제10장의 저본이 되었던 판본이 선초본보다 한 층위 앞선 판본임을 말해 주는 것이다. 아마도 임신본과 선초본의 저본은 동일 계통의 판본(판본의 전승 층위가 동일함)이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임신본 ‘왕력’ 가운데 선초본의 번각이 아닌 이 紙張에 동일한 脫字¹⁶⁾가 내재되어 있는

12) 선초본: “息‘途’一作色刀”, 임신본: “息‘□’一作色刀”

13) “息‘途’”(선초본) / “息‘□’”(임신본)

14) 선초본 ‘▲’의 글자 모양은 상부는 ‘卅’이고 하부는 ‘畹’로 되어 있다.

15) 임신본 ‘▲’의 글자는 ‘耑’와 유사한 모양이다.

16) ‘왕력’ 제10장의 後面 3단 제1행의 선초본: “王^{名□□又建}”, 임신본: “王^{名□□又建}”
歲戊寅立治

것으로 보아, 임신본의 저본이 되었던 판본은 ‘고려 원각본’이 아니라 ‘고려원각본’을 번각한 ‘고려번각본’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이 임신본 ‘왕력’ 제10장은 ‘고려번각본’을 번각한 것이고, 선초본 ‘왕력’은 ‘고려번각본’을 저본으로 해서 필사 판각된 판본으로 판단된다.

②-2 “或云武康‘名璋’小名▲■‘庚’申立” / “或云武康‘獻丙戌’小名一▲■‘德’申立”(前面 제9행)

임신본 ‘왕력’ 제10의 前面 제9행의 “或云武康‘獻丙戌’小名一▲■‘德’申立”에는 바로 위에서 살펴본 내용 이외에도 다음과 같은 오류가 있다. 그것은 선초본의 “或云武康‘名璋’小名▲■‘庚’申立” 가운데 ‘名璋’과 ‘庚’이 엉뚱하게 ‘獻丙戌’과 ‘德’으로 되어 있는 것이다. 선초본은 바르게 되어 있는데 임신본에만 잘못되어 있는 상태이다. 이것은 선초본의 저본이 된 고려본(추정)은 이 내용이 올바르게 되어 있었기 때문에 선초본 역시 오류가 없게 된 것이다. 하지만 임신본의 저본이 된 고려본(추정)에는 어느 정도 이와 유사한 病症이 내재되어 있었기 때문에 임신본에서 이와 같이 잘못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렇게 볼 때, 임신본의 저본이 되었던 고려본(추정)은 선초본의 저본이 되었던 고려본(추정)보다 후에 인출된 판본인 것으로 추정된다.

②-3 “奴‘角干’追‘封滿’天葛文王” / “奴‘□□’追‘▲▲’天葛文王”(後面 제5행)

원각본은 선초본의 내용과 동일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런데 임신본에서는 ‘角干’ 두 글자가 탈락되고, ‘封滿’ 두 글자는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되어 있다. 아마도 이와 같은 현상은 임신본에서 필사판각이 아닌 번각하는 과정에서 “角干’追‘封滿” 가운데 ‘角干’ 두 글자가 탈락되고 ‘封滿’ 두 글자의 모양이 이상한 형태로 뒤바뀌어진 상태에서 판각된 결과로 짐작된다. 또는 임신본의 저본

자체가 이러한 상태로 훼손되어 있었기 때문에 야기된 현상일 가능성도 있다 하겠다(혹은 필사 판각되면서 잘못 필사되었거나, 임신본의 책판이 이지러진 상태에서 인출된 결과로 인식될 수도 있겠다. 그러나 ‘封滿’에 해당되는 임신본의 글자를 보면, 정상적인 글자의 형태는 아니지만 글자의 획이 분명한 것으로 보아, 誤寫되거나 冊板이 뭉개지고 이지러져 인출된 글자로 보이지는 않는다).

③ ‘왕력’의 제11장의 판각 상태(<사진 10>)

“第三十二孝昭王^{名悝恭王 上作洪金氏父神文王母神}”(제11장 後面 제5행)
^{穆王后 壬辰立理十年陵在望德寺東}

이것은 위와 같은 내용에서 ‘上’¹⁷⁾과 ‘壬’ 이하의 내용 또는 ‘名’과 ‘穆’ 이하의 내용이 冊板의 판각이 완료된 이후 보각[埋木]된 것으로 추정된다.¹⁸⁾ 임신본의 후쇄본인 ‘봉좌문고본’과 ‘국립중앙도서관소장사진본’ 등에는 ‘上’과 ‘壬’ 이하의 내용이 완전히 결락된 상태이다(<사진 11>).

④ ‘왕력’ 제11, 12, 15장. 제2권의 제43장, 제45~49장. 제3권의 제1~14장의 판각 상태(<사진 2, 3, 4, 10>)

임신본 ‘왕력’의 제11, 12장. 제2권의 제43장, 제45~49장. 제3권의 제1~14장은 版心の 魚尾, 글자의 모양 등에 있어 선초본과는 완전히 다른 판본의 모습을 하고 있다. 이들의 版心과 魚尾의 모양은 대부분 黑口 上下大黑魚尾이다(단,

17) 이 ‘上’은 임신본(규장각본)에 잘못되어 글자인데, <사진 11>에 보이듯이 사실 온전한 모양의 ‘上’은 아니고 ‘上’과 비슷하게 생긴 글자이다. 학계에서는 보통 ‘一’의 오류로 간주하고 있다. 한편 선초본에는 ‘人’¹⁸⁾로 되어 있다. 필자의 생각에 선초본의 ‘人’은 어느 글자의 뒤에 동일한 글자가 나올 경우 동일 글자를 또 쓰지 않고 그 글자 대신에 써 넣는 부호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글자가 들어 있는 내용을 살펴보면, “名理恭‘人’一作洪”은 “名理恭‘恭’一作洪”(이름은 ‘理恭’인데 ‘恭’은 ‘洪’으로 되어 있기도 하다)의 내용인 셈이다.

18) 한편 이 경우는 임신본 자체에서 冊板의 마멸로 인해 자연적으로 결락되었을 가능성도 짙다 하겠다.

‘왕력’의 제12장의 경우는 上下細黑魚尾이고, 제2권의 제47장의 경우는 黑口 上下白魚尾이다).

그리고 이들 紙張의 글자 모양은 정상적인 글자의 서체에서 벗어나고 투박한 것이 아니라 균형이 잡힌 初刻의 風格이 보이고 있는 상태이다. 또한 매우 비정상적인 모양의 글자와 결락된 글자들이 거의 없는 상태이다. 이로 보면 이들 紙張에 나타난 판각된 글자의 모양은 필사되어 처음으로 판각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들은 고려본(추정)이나 선초본을 저본으로 해서 필사된 것으로 판단된다. 단, 제2권 제46장의 경우는 뒤에서 언급한 바(⑦ 제2권 제46장의 판각 상태)와 같이 선초본과 고려본(추정) 가운데 고려본(추정)을 저본으로 해서 필사 판각된 것으로 추정되는 것이다.

⑤ 제1권 제12, 16, 36장의 판각 상태(<사진 8, 9>)

임신본 제1권의 제12, 16, 36장은 版心の 魚尾, 글자의 모양 등에 있어 선초본과는 완전히 다른 판본의 모습을 하고 있다. 판심의 모양에 있어서 선초본은 제1권~제5권 전부가 黑口 上下1線雙弧黑魚尾인 반면에, 임신본의 제12, 36장의 경우는 版心題(“書名 卷次 張次”)만 기재되어 있고 魚尾가 없는 전형적인 고려시대의 양식이다(단, 제16장의 경우는 黑口 上下細黑魚尾이다).

그리고 이들 紙張에서 일부분의 글자 모양은 상당히 투박하고, 정상적인 글자의 서체에서 벗어나 있는 상태이다. 또한 매우 비정상적인 모양의 글자와 결락된 글자들도 발생되어 있는 상태이다.¹⁹⁾ 이로 보면 이들 紙張에 나타난 판각된 글자의 모양은 필사해서 처음으로 판각된 글자의 모양이 아니라, 이미 판각된 글자를

19) 鮮初本에는 올바른 글자로 되어 있는데, 壬申本에 잘못된 글자로 되어 있는 것(오자, 뭉개진 글자, 결락된 글자 등)의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 ① ‘兒’(제1권 12前面 6행)
- ② ‘葛’(제1권 12前面 8행)
- ③ ‘光’(제1권 12後面 8행)
- ④ ‘所’(제1권 12後面 9행)
- ⑤ ‘土’(제1권 16後面 5행)

다시 번각된 모양으로 인식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와 같이 임신본 제12, 16, 36장에서 보여주고 있는 글자의 모양은 필사해서 처음으로 판각된 글자의 모양이 아니라 번각된 상태의 글자 모양인데, 판본의 상태는 선초본과 상이하다. 따라서 임신본 제12, 16, 36장은 필사판각된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선초본의 번각도 아닌 것이다. 따라서 이들은 선초본이 아닌 다른 판본의 번각인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다.

그렇다면 이들이 “선초본이 아닌 다른 판본”의 번각이라면, “선초본이 아닌 다른 판본”은 어떤 판본일까?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제12, 16, 36장의 版心과 魚尾의 상태가 전형적인 고려시대의 양식이고, 임신본에서 선초본의 舊板이 사용된 점을 감안하면, 선초본보다 한 층위 앞선 판본 즉 고려본(추정)일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귀결된다.

⑥ 제2권 제43장의 판각 상태(<사진 3>)

“上上田三十‘頃’” / “上上田三十‘頃’”(前面 제3행)

이것은 내용상으로 볼 때, ‘頃’이 옳다. 그런데 이 ‘頃’이 임신본에는 俗字²⁰⁾로 기재되어 있고, 선초본에는 誤字인 ‘頃’으로 기재되어 있다. 아마도 원각본에는 ‘頃’·‘頃’과 유사한 일종의 속자로 기재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런데 임신본에서는 저본의 글자 모양과 동일하게 필사되어 판각된 것이고, 선초본에서는 ‘頃’으로 잘못 필사되어 판각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렇게 볼 때 임신본 제2권 제43장은 선초본을 저본으로 하지 않고, 다른 판본인 고려본(추정)을 저본으로 해서 필사판각된 것으로 추측된다.

20) 임신본의 글자는 ‘頃’·‘頃’과 유사한 속자로 기재된 것이다. 이 속자는 『廣碑別字』의 p.301에서 확인된다.

⑦ 제2권 제46장의 판각 상태(<사진 3>)

“一時所‘丁’” / “一時所‘”²¹⁾(後面 제1행)

이것은 내용상으로 볼 때 원래 원각본에 “一時所‘寧’”으로 기재되었을 것으로 판단되는 것이다. 그런데 임신본과 선초본의 저본이 된 판본은 ‘寧’의 윗부분이 결락되어 ‘’의 상태로 되어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것이 임신본에서는 ‘’의 모양이 그대로 수용되어 “一時所‘”으로 필사되어 판각된 것이고, 선초본에서는 불분명한 ‘’이 ‘丁’으로 인식되어 “一時所‘丁’”과 같이 필사되어 판각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렇게 볼 때 임신본 제2권 제46장은 선초본을 저본으로 하지 않고, 다른 판본 즉 선초본보다 한 층위 앞선 판본인 고려본(추정)을 저본으로 해서 필사판각된 것으로 보인다.

이제 이상에서 고찰한 것을 종합하여 임신본의 저본과 판각 성격을 밝혀보고자 한다.

임신본의 張數는 총 218장인데, 이중 43장은 舊板(선초본의 책판)에서 인출된 것이고, 147장은 선초본을 번각한 新板에서 인출된 것이며, 5장은 고려본(추정)을 번각한 新板에서 인출된 것이고, 23장은 필사 판각된 신판에서 인출된 것으로 이해된다.

이 가운데 고려본(추정)을 번각한 新板에서 인출된 것으로 추정된 임신본의 5장은 ‘왕력’의 제9장, 제10장과 제1권의 제12, 16, 36장 등이고, 필사 판각된 것은 23장인데 이중 분명 고려본(추정)을 저본으로 필사 판각된 것으로 추정된 것은 2장으로서 제2권의 제43, 46장이다. 이제 본 연구에서 이들의 저본과 판각의 성격에 대해 분석된 것을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임신본 ‘왕력’ 제9, 10장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구명되었다. 첫째, ‘왕력’ 제9, 10장의 저본이 되었던 판본은 선초본보다 한 층위 앞선 판본으로서 ‘고려원

21) 이 ‘’이 ‘육당본’ 『삼국유사』(최남선 편, 서문문화사, 1988. p.117)에는 ‘寧’으로 교정되어 있다.

각본'을 번각한 '고려번각본'으로 추정되었다. 둘째, '왕력' 제9, 10장의 임신본은 '고려번각본'을 번각한 것으로 추정되었다(한편 선초본은 '고려번각본'을 저본으로 해서 필사 판각된 판본으로 판단된다). 셋째, '왕력' 제9, 10장의 임신본의 저본은 선초본의 저본과 동일 계통(판본의 전승 층위가 동일함)의 고려본(추정)이었을 것으로 생각되었다. 넷째, 임신본의 저본이 되었던 고려본(추정)은 선초본의 저본이 되었던 고려본(추정)보다 후에 인출된 판본인 것으로 추정되었다.

다음으로 임신본 제1권의 제12, 16, 36장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구명되었다. 첫째, 임신본 제12, 16, 36장에서 보여주고 있는 글자의 모양은 필사해서 처음으로 판각된 글자의 모양이 아니라 번각된 상태의 글자 모양인데, 판본의 상태는 선초본과 상이하다. 즉 이들은 필사 판각된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선초본의 번각도 아닌 것으로 분석되었다. 둘째, 임신본 제12, 16, 36장의 版心과 魚尾의 상태가 전형적인 고려시대의 양식이고, 임신본에서 선초본의 舊板이 사용된 점을 감안해 볼 때, 임신본 제12, 16, 36장은 선초본보다 한 층위 앞선 판본 즉 고려본(추정)을 저본으로 해서 번각된 것으로 판단되었다.

끝으로 임신본 제2권의 제43, 46장의 저본과 판각의 성격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구명되었다. 제2권의 제43장의 경우 임신본에는 俗字로 기재되어 있는 '頃'이 선초본에는 誤字인 '頃'으로 잘못 기재되어 있고, 제2권의 제46장의 경우 임신본에는 결락된 글자 상태로 되어 있는 '亓'이 선초본에는 誤字인 '丁'으로 잘못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볼 때, 임신본 제2권 제46장은 선초본을 저본으로 하지 않고, 다른 판본 즉 선초본보다 한 층위 앞선 판본인 고려본(추정)을 저본으로 해서 필사 판각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제 지금까지 고찰된 내용에 의거하여 도출된 壬申本의 저본과 판각 성격을 표로 만들어 제시하면서 본 연구를 마무리하고자 한다.

<표 1> 壬申本の 저본과 판각 성격

	舊板에서 인출된 것 (43장)		新板에서 인출된 것(175장)						張數
			선초본을 번각한 것		고려본(추정)을 번각한 것		筆寫板刻된 것		
王曆		0	제1~8장, 제13, 14장. ²²⁾	10	제9장, ²³⁾ 제10장.	2	제11장, ²⁴⁾ 제12, 15장.	3	15
제1권	제3, 4, 13, 14, 22, 26, 28, 35장.	8	제1, 2, 5~11, 15, 17~21, 23~25, 27, 29~34, 37장.	26	제12, 16, 36장.	3		0	37
제2권	제3~18, 28~33, 41, 44장.	24	제1, 2, 19~27, 34~40, 42장.	19		0	제43장, 제45~49장. ²⁵⁾	6	49
제3권	제19, 23, 28, 36장.	4	제15~18, 20~22, 24~27, 29~35, 37~54장. 제55, 56장.	38		0	제1~14장.	14	56
제4권	제3, 5, 19, 24장.	4	제1, 2, 4, 6~18, 20~23, 25~31장.	27		0		0	31
제5권	제7, 10, 13장.	3	제1~6, 8, 9, 11, 12, 14~30장.	27		0		0	30
計		43		147		5		23	218

22) 이들은 대부분 선초본의 일부 글자가 수정되어 飜刻된 것이다.

23) ‘왕력’의 제9장은 일부는 筆寫하고, 일부는 底本{즉 高麗本(추정)}의 紙張을 오려 붙인 다음 판각된 것으로 판단된다.

24) ‘왕력’의 제11장은 筆寫板刻된 후 補刻[埋木]하여 수정된 것으로 판단된다.

25) 제2권의 제43, 46장은 분명 고려본(추정)을 저본으로 해서 필사판각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언

본 연구는 현재 공개된 선초본인 ‘왕력’편, 제1, 2, 4, 5권과 임신본과의 면밀한 대조를 통해 임신본의 판각에 대하여 올바르게 분석하여 필자가 범했던 종래의 오류를 바로 잡고, 임신본의 저본과 판본의 판각에 대해 새로운 분석을 시도한 것이다.

그 결과를 요약하여 결론에 대신하면 다음과 같다.

임신본 『삼국유사』의 張數는 총 218장인데, 이중 43장은 舊板(선초본의 책판)에서 인출된 것이고, 147장은 선초본을 번각한 新板에서 인출된 것이며, 5장은 고려본(추정)을 번각한 新板에서 인출된 것이고, 23장은 필사 판각된 신판에서 인출된 것으로 고찰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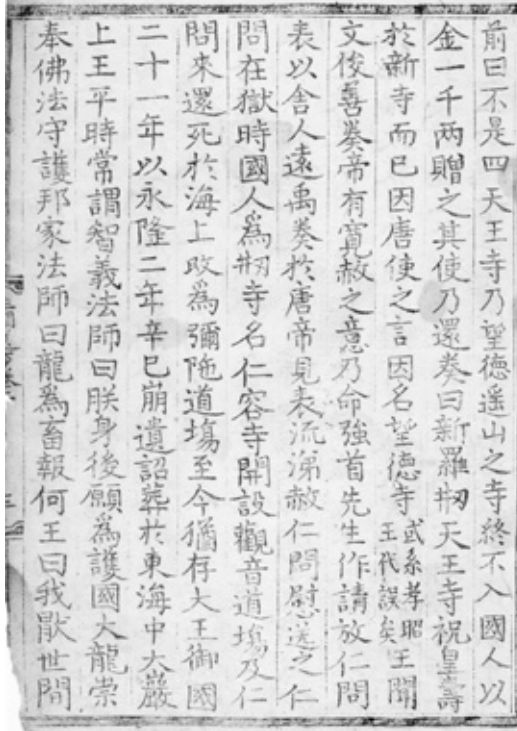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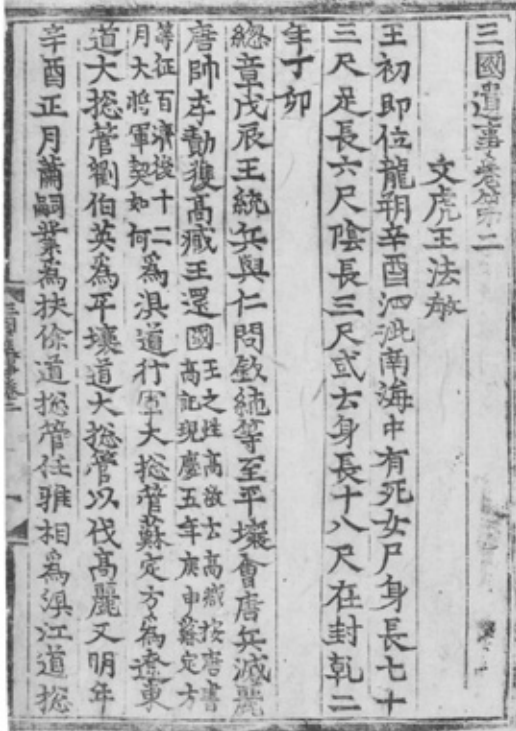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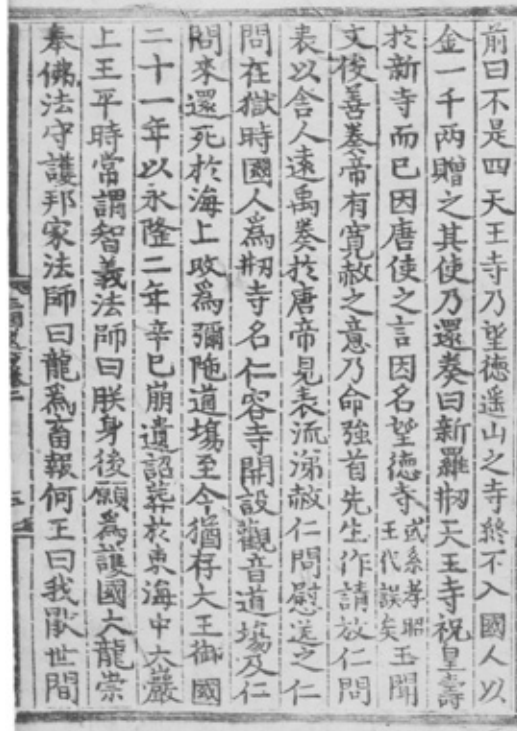
이 가운데 고려본(추정)을 번각한 新板에서 인출된 것으로 판단된 임신본의 5장은 ‘왕력’의 제9장, 제10장과 제1권의 제12, 16, 36장 등이고, 필사 판각된 것으로 판단된 23장 중에서 제2권의 제43, 46장 2장은 고려본(추정)을 저본으로 필사 판각된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분석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① 임신본 ‘왕력’ 제9, 10장은 고려본(추정)을 저본으로 해서 번각되었고, 저본이 되었던 고려본(추정)은 ‘고려번각본’(추정)으로서 선초본의 저본이 되었던 판본보다 후에 인출된 것으로 추정되었다.
- ② 임신본 제1권의 제12, 16, 36장은 선초본보다 한 층위 앞선 판본 즉 고려본(추정)을 저본으로 해서 번각된 것으로 판단되었다.
- ③ 임신본 제2권의 제43, 46장은 선초본보다 한 층위 앞선 판본인 고려본(추정)을 저본으로 해서 필사 판각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참고 문헌>

- 高大圖書館. “『三國遺事』 古本 10種의 概觀.” 『三國遺事』(高大圖書影印 제12호), 1983.
- 今西龍. “正德本三國遺事に 대해서.” 『典籍之研究』 5・6(1927).
- 金相鉉. “三國遺事の 書誌學的 考察.” 『三國遺事の 綜合的 考察』. 精文研, 1987.
- 南權熙. “泥山本「三國遺事」의 書誌的 考察.” 『書誌學研究』 5・6합집(書誌學會, 1990).
- 柳富鉉. “『三國遺事』 ‘卷二’에 대한 書誌學的 考察.” 『東方學志』 76집(國學研究院, 1992).
- 柳富鉉. “『三國遺事』 ‘왕력’ 校勘考.” 『史學研究』 43・44호(韓國史學會, 1992).
- 柳富鉉. 『삼국유사의 교감학적 연구』. 한국학술정보, 2007.
- 柳鐸一. “三國遺事の 文獻變化 樣相과 變因.” 『三國遺事研究』 上. 嶺南大, 1983.
- 河廷龍. 『삼국유사 사료비판』. 민족사, 2005.

<사진 1> 「삼국유사」 제2권 제1장(新板), 제3장(舊板)

	제1장 전면(鮮初本 飜刻)	제3장 전면(舊板 印出)
鮮初本		
壬申本		

<사진 2> 「삼국유사」(임신본) 왕력 제12, 15장

長安 聖德王 金氏名 神龍 景龍 中宗	神龍 景龍 中宗	景雲 睿宗	先天 玄宗	開元 玄宗	天寶 玄宗	肅宗	代宗	廣德 代宗	永泰 代宗	大曆 代宗	建中 德宗	興元 德宗
同光 後唐 明宗	天成 後唐 明宗	長興 後唐 明宗	開帝 後唐 明宗	清泰 後唐 明宗	石晉 天福 後晉	前漢 高惠 小文景	後漢 光武 明帝	魏晉 宋齊 梁陳	李唐 高祖 太宗	宋梁 後唐 石晉	大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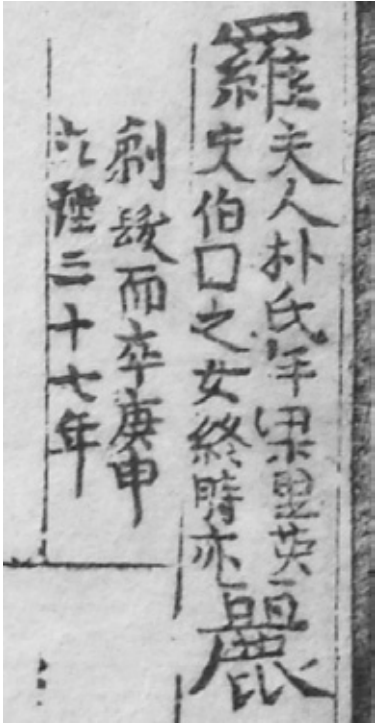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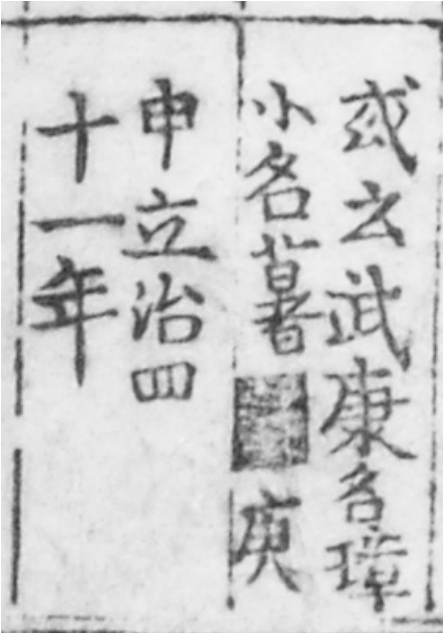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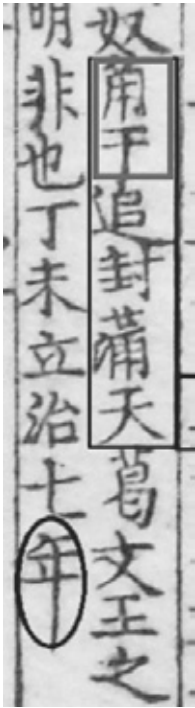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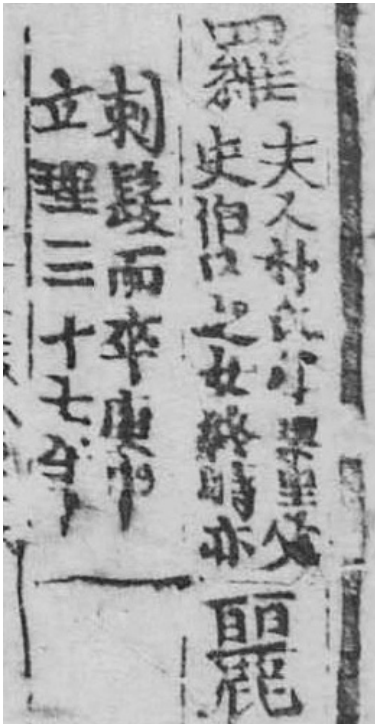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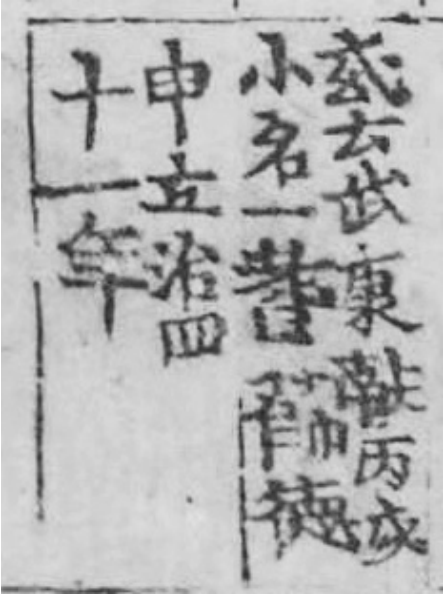
<사진 3> 「삼국유사」 제2권 제43장 전면, 제46장 후면

	제43장 전면	제46장 후면
鮮初本	幼冲人乃爲十五代始祖也所御國者已曹敗所葬廟者今尚存合于宗桃續乃祀事仍遣使於素離之址近廟上上田三十頃爲供營之資號稱王位田付屬本土王之十七代孫廣世級干祗稟朝旨主掌厥田每歲時釀醪醴設以餅飯茶菓庶羞等奠年年不墜其祭日不失居登王之所定年內五日也芬苾孝祀於是乎在於我自居登王即位已卯年置便房降及仇衡朝未三百三十載之中享廟禮曲永無違者其乃仇衡失位去國逮龍朔元年辛酉六十年之間享是廟禮或闕如也美矣哉文武王謚也先奉尊祖孝乎惟孝繼泯絕	羣歌而奏 衆舞而呈 七日而後 一時所丁 風吹雲卷 空碧天青 下六圓外 垂一紫纓 殊方異土 比屋連甍 觀者如堵 觀者如雲 五歸各邑 一在茲城 同時同迹 如第如兄 實天生德 爲世作程 寶位初陟 寰區欲清 華構微古 土階尚平 万機始勉 庶政施行 無偏無僞 惟一惟精 行者讓路 農者讓耕 四方奠枕 萬姓迓衡 俄瞻薤露 靡保椿齡 乾坤變氣 朝野痛情 金相其躅 玉振其聲 來苗不絕 薦藻惟馨 日月雖逝 規儀不傾
壬申本	幼冲人乃爲十五代始祖也所御國者已曹敗所葬廟者今尚存合于宗桃續乃祀事仍遣使於素離之址近廟上上田三十頃爲供營之資號稱王位田付屬本土王之十七代孫廣世級干祗稟朝旨主掌厥田每歲時釀醪醴設以餅飯茶菓庶羞等奠年年不墜其祭日不失居登王之所定年內五日也芬苾孝祀於是乎在於我自居登王即位已卯年置便房降及仇衡朝未三百三十載之中享廟禮曲永無違者其乃仇衡失位去國逮龍朔元年辛酉六十年之間享是廟禮或闕如也美矣哉文武王謚也先奉尊祖孝乎惟孝繼泯絕	羣歌而奏 衆舞而呈 七日而後 一時所丁 風吹雲卷 空碧天青 下六圓外 垂一紫纓 殊方異土 比屋連甍 觀者如堵 觀者如雲 五歸各邑 一在茲城 同時同迹 如第如兄 實天生德 爲世作程 寶位初陟 寰區欲清 華構微古 土階尚平 万機始勉 庶政施行 無偏無僞 惟一惟精 行者讓路 農者讓耕 四方奠枕 萬姓迓衡 俄瞻薤露 靡保椿齡 乾坤變氣 朝野痛情 金相其躅 玉振其聲 來苗不絕 薦藻惟馨 日月雖逝 規儀不傾

<사진 4> 「삼국유사」(임신본) 제3권의 제1, 14장

제 1 장	三國遺事卷第三 興法第三 順道肇麗 道公之次亦有法深義淵最嚴之說相違而 麗本記云小獸材王即位二年壬申乃東晉咸安三 年孝武帝即位之年也前秦苻堅遣使及僧順道傳 像經文時聖都關 中即長安又四年甲戌何道來自晉明帝乙亥 二月創宵門寺以置順道又創伊弗蘭寺以置何道此 高麗佛法之始 僧傳作二道來自魏云者誤矣前有 前秦而來又云宵門寺今興國伊弗蘭寺今興福者示 誤被麗時邐安市城一冬安丁忽在遼水之北遼水一 鴨綠今古安民江豈有松京之興國寺名讚曰 鴨綠 春深渚草鮮白沙鷗鷺等閑眠忽驚素櫓一聲遠何處 漁舟客到烟 難陀闍濟 百濟本記云第十五僧傳云 十四誤施流王即位甲申東晉孝 武帝七 胡僧摩羅難陀至有晉迎置宮中禮敬明年乙酉 創佛寺於新都漢山州度僧十人此百濟佛法之始又 阿莘王即位大元十七年二月下敕崇信佛法求禪摩 羅難陀譯古童學其異述詳讚曰 天造從來車味問 大都為役也應難翁翁自解呈歌舞引得旁人皆眼看	三寶咸通錄載高麗遼東城傍塔者古老傳云昔高麗 聖王按行國界次至此城見五色雲霞地柱尋雲中有 僧執錫而立既至便滅遠看還現傍有古塔三重上如 覆釜不知是何更往覓僧唯有荒草掘得一丈得枚并 履又掘得銘上有梵書侍臣識之云是佛塔王委問 詰答曰漢國有之彼名蒲翁王本作佛唐三 蔡天全人因生信起 本塔七重後佛法始至具知始末今更損高本塔朽壞 育王所統一闢浮提洲處處立塔不足可怪又唐龍朔 中有事遼无行軍薛仁貴行至隋主討遼古地乃見山 像空曠蕭條絕於行往問古老云是先代所現使高麗
제 14 장	來京師具在 若西按西漢與三國地理志遼東城在鴨綠之 外屬漢幽州高麗聖王未知何君或云東明聖帝疑非 也東明以前漢元帝建昭二年即位成帝鴻嘉壬寅升 遐于時漢亦未見具葉何得海外倍臣已能識梵書乎 然稱佛為蒲翁王似在西漢之時西域文字或有識之 者故云梵書爾按古傳育王命鬼徒每於九億人居地 立一塔如是起八萬四千於閼浮界內藏於巨石中今 處處有現瑞非一蓋真身舍利感應難思矣讚曰 育王寶塔遍塵寰雨濕雲埋薜蘿班想像當年行路眼 幾人指點祭神壇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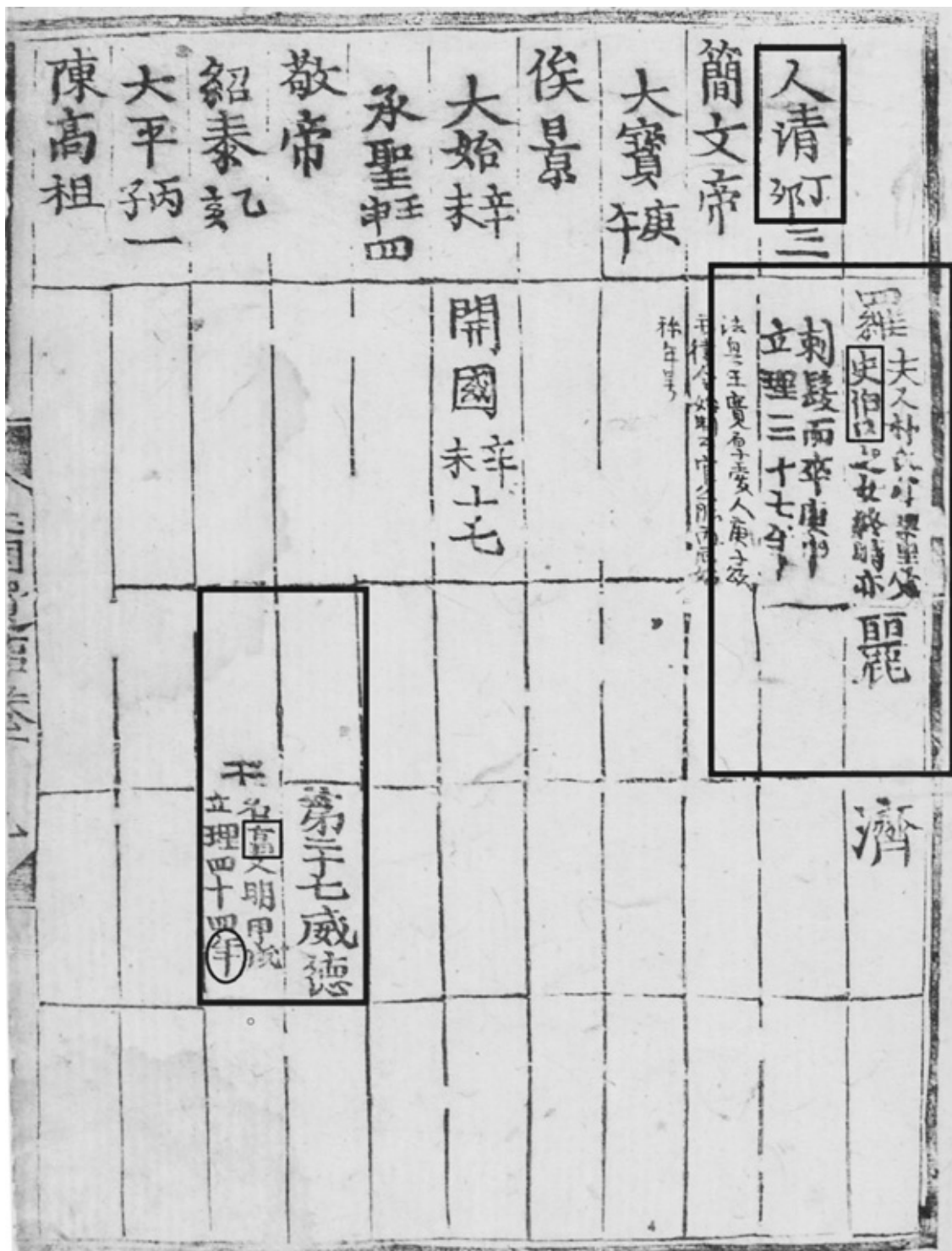
<사진 5> 「삼국유사」 왕력 제9, 10장의 일부분

	제9장 전면의 제1, 2행	제10장 전면의 제9, 10행	제10장 후면의 제5행
鮮 初 本			
壬 申 本			

<사진 6> 「삼국유사」(임신본) 왕력 제9, 10장

入清 三 簡文帝 大寶 庚 侯景 大始 拜 承聖 四 敬帝 紹泰 三 太平 一 陳高祖	永定 三 文帝 天嘉 顧 天康 顧 光大 二 宣帝 大建 十	大昌 四 大寶 庚 侯景 大始 拜 承聖 四 敬帝 紹泰 三 太平 一 陳高祖	大建 十 宣帝 天嘉 顧 天康 顧 光大 二 永定 三
入清 三 簡文帝 大寶 庚 侯景 大始 拜 承聖 四 敬帝 紹泰 三 太平 一 陳高祖	大昌 四 大寶 庚 侯景 大始 拜 承聖 四 敬帝 紹泰 三 太平 一 陳高祖	大建 十 宣帝 天嘉 顧 天康 顧 光大 二 永定 三	大建 十 宣帝 天嘉 顧 天康 顧 光大 二 永定 三
入清 三 簡文帝 大寶 庚 侯景 大始 拜 承聖 四 敬帝 紹泰 三 太平 一 陳高祖	大昌 四 大寶 庚 侯景 大始 拜 承聖 四 敬帝 紹泰 三 太平 一 陳高祖	大建 十 宣帝 天嘉 顧 天康 顧 光大 二 永定 三	大建 十 宣帝 天嘉 顧 天康 顧 光大 二 永定 三
入清 三 簡文帝 大寶 庚 侯景 大始 拜 承聖 四 敬帝 紹泰 三 太平 一 陳高祖	大昌 四 大寶 庚 侯景 大始 拜 承聖 四 敬帝 紹泰 三 太平 一 陳高祖	大建 十 宣帝 天嘉 顧 天康 顧 光大 二 永定 三	大建 十 宣帝 天嘉 顧 天康 顧 光大 二 永定 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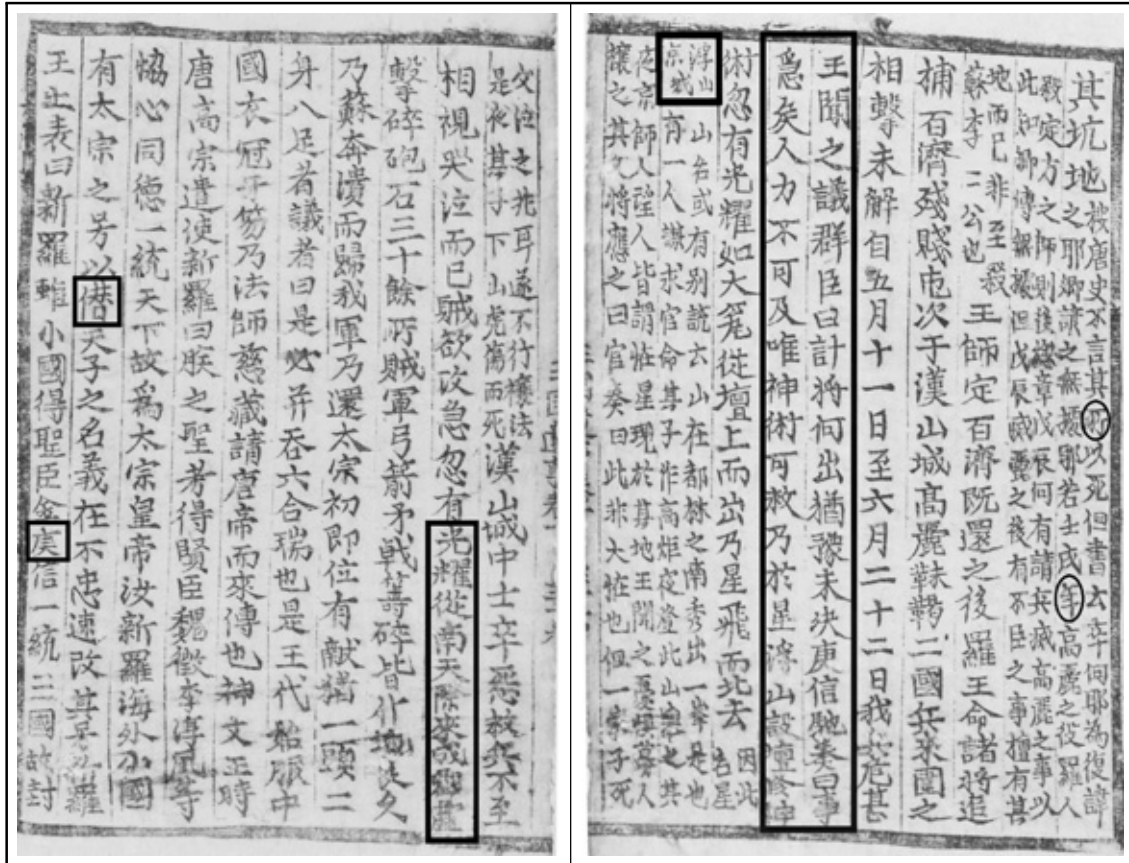
<사진 7> 「삼국유사」(임신본) 왕력의 제9장 전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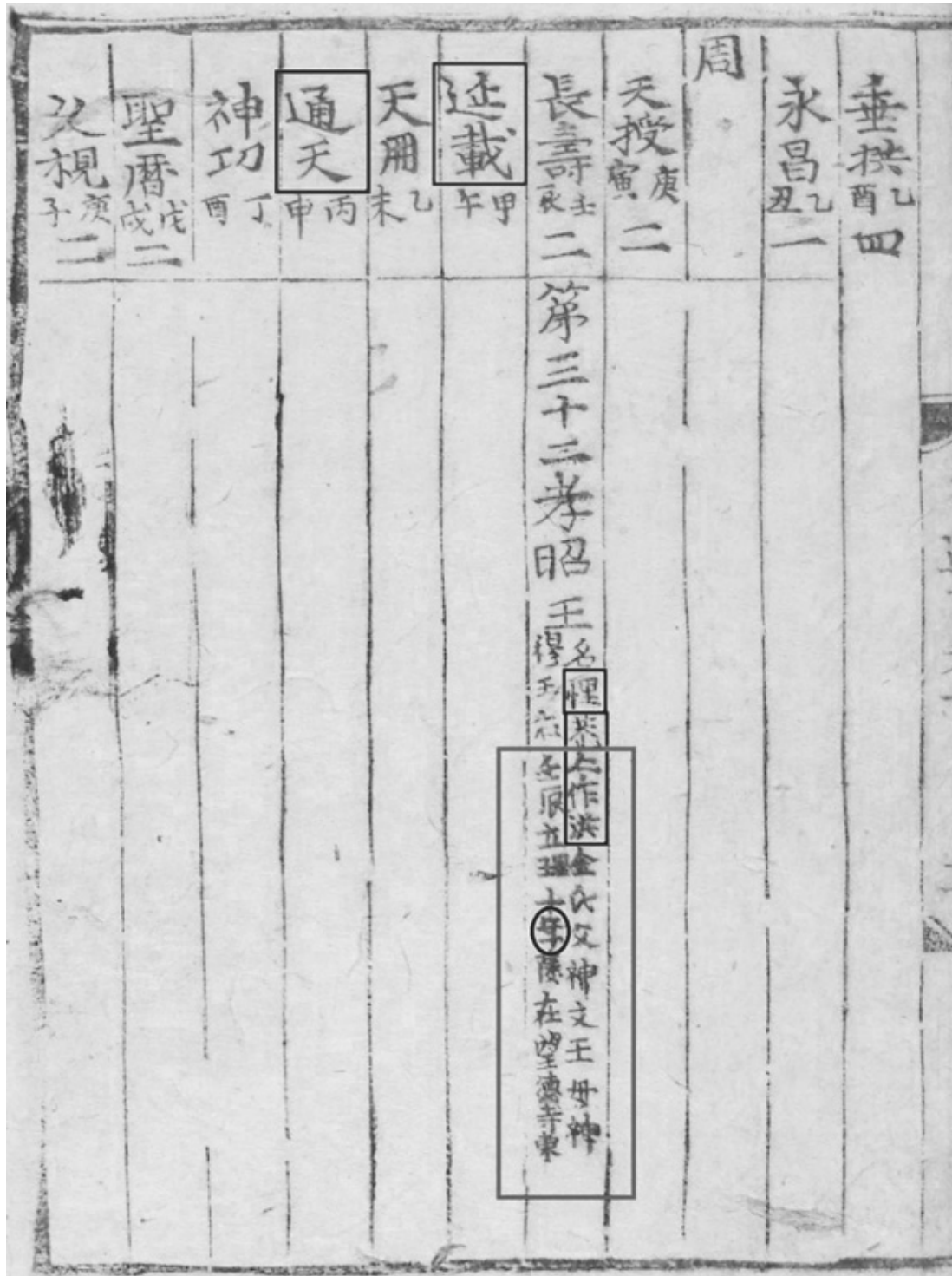
<사진 8> 「삼국유사」(임신본) 제1권 제12, 16장

제 12 장	虎初降于從山是爲本彼部崔氏祖今曰通仙部紫巴等東南村屬焉致遠乃本彼部人也今皇龍寺南味吞寺南有古墟云是崔侯古宅也殆明矣 五曰金山加利村寺之北山也 長曰祇陀一作他初降于明活山是爲漢歧部又作韓歧部裴氏祖今云加德部上下西知乃兒華東村屬焉 六曰明信山高耶村長曰虎孫初降于金剛山是爲習比部薛氏祖今臨川部勿伊村仍悅赫村關各一昨舊俗等東北村屬焉 按上文此六部之祖似皆從天而降皆禮王九年始改六部名又賜六姓令俗中興部爲母長福部爲父臨川部爲子加德部爲 女其實未詳前漢地節元年壬子子古元元年又三月朔六部祖各率子弟俱會於關川岸上議曰我輩上無君主臨理蒸民民皆放逸自從巧欲盡覓有德人爲之君主立邦設都乎於是乘高南望楊山下巖井旁異氣如電光垂地有一白馬跪拜之狀尋擒之有一紫卵大如青馬見人長嘶上天剖其卵得童男形儀端美驚異之俗於東泉詞鵬野北身生光彩焉獸率舞天地振動日月清明因名赫居世王蓋辨信也武作弗矩內云是而述聖母之語也故中華人讀公地聖母有說也聖母之語是也乃至龍現瑞產關英又焉知非正現聖母之泣號曰居瑟部或作居西干和口之起其	告于官官曰以何驗是汝家童曰我本治正作出隣鄉而入取居之請墟地捨看從之果得礪炭乃取而居焉時南解王知脫解是智人必長公主妻之是爲阿尼夫入一日吐解登東岳迴程次令白衣常水飲之白衣汲水中路先嘗而進其角盃貼於口不解因而責之白衣誓曰爾後若近過不敢先嘗然後乃解自此白衣龍服不敢欺罔今東岳中有一井俗云遙乃井是也及誓礼王崩以光虎帝中九六年丁巳六月乃登王位以肯是吾家取他人家故因姓肯氏或云因鷗開積故去爲宇姓肯氏解積脫郊而生故因名脫解在位二十三年連
제 16 장	初四年己卯崩英疏川丘中後有神詔慎壇葬我嘗其蠟骸周三尺二寸身骨長九尺七寸蓋疑如一骨節皆連環謂天下無敵力士之骨碎爲蠟骸安關內神又報云我骨置於東岳故令安之 王代調靈三十七世文虎晚解也故我脫解脫川紅聖豫安於四倉山王從其言故至今國北不絕 金闕智 脫解王代 永平三年庚申一云中元六年誤矣八月四日魃公夜行月城西里見大光明於始林中場有紫雲從天垂地雲中有黃金積掛於樹枝光自噴出亦有白雞鳴於	

<사진 9> 「삼국유사」(임신본) 제1권 제36장



<사진 10> 「삼국유사」(임신본) 왕력 제11장 후면



<사진 11> 「삼국유사」(임신본) 왕력 제11장 後面 제5행

선초본	임신본				
	奎章閣本	天理大本	晚松本	蓬左文庫本	國立中圖本
